

<신약1\_청소년 설교 1과>

제목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배울 말씀	미가 5:2, 이사야 7:14, 마태복음 2:4-6, 마태복음 1:18-25
읽을 말씀	마태복음 1:18-25
외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행 13:23).
메인 아이디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포인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를 믿어라!

▶ 표지에서 클릭하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증거가 필요해요. 자신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결백을 증명해줄 알리바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글을 쓰거나 상대방을 설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없다면 그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주장으로 치부될 거예요. 반대로 주장에 대한 근거나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게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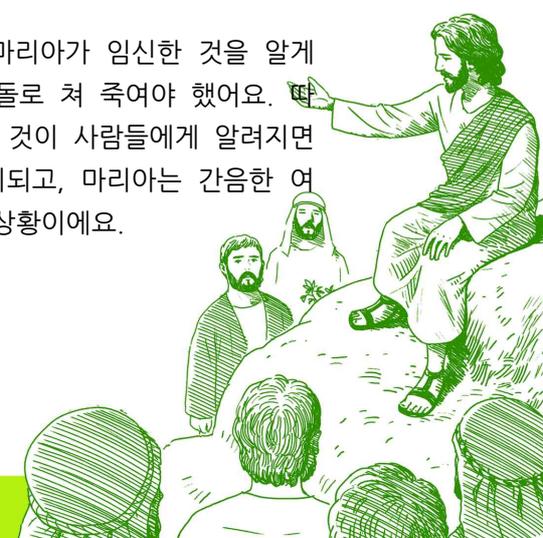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알려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으로써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어요. 정혼이란 남녀가 공식적으로 결혼을 약속한 상태 즉, 오늘날의 약혼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정혼부터 시작해서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혼한 남녀는 일정한 기간(대략 1-2년)을 기다린 후에 혼인 예식, 즉 결혼식을 하고 나서 부부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혼한 남녀는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아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구원자의 증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임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1:20)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태누엘이라 하리라” (사7:14)
--	--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의 정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했어요. 따라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법적인 절차를 따라 이 둘의 정혼은 파기되고,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으로 고발되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요셉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고민한 끝에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끝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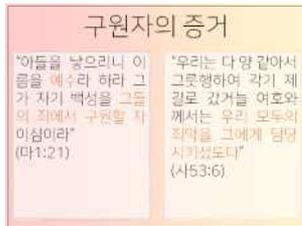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으로 되었다는 말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뜻이에요.

(▶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여 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마리아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라고 이야기했어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예수인 것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볼까요?

(▶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무척이나 놀랐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것도 놀라웠을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된다는 것도 놀라웠을 거예요. 특히 그 아기가 ‘예수’, 즉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따라 아내인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결혼식을 치르고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마리아가 가진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생각해 보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 [텍스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 [텍스트](#))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질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 [텍스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 [텍스트](#))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가문에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일평생 예수님을 증거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 [텍스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있나요? 만약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고통, 심지어는 박해로 인해 생명을 빼앗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친구들은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수많은 근거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증명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셨으면 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 정도 각자 기도한 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